

북

중국을 알면 올림픽이 즐겁다

Books

'중국문화 시리즈' 6권 등 올림픽에 맞춰 출간 러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 숫자 8의 중국어 발음인 'ba(八)'와 '부자가 되다(發財)'는 뜻의 'fa(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 베이징 올림픽'도 8월 8일 오후 8시에 개막했다.

최근 세계인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소개한 서적들이 봇물이 이루고 있다. 중국의 건축, 음식, 차 등 세부적으로 분야를 나눠 백과사전 형식으로 소개하는 시리즈를 비롯해 여행서, 에세이, 역사 등 다양하다.

우선 건축·명찰·전통의약·전통공예·회화 등 18개 분야로 나눠 중국의 문화를 소개한 '중국문화시리즈'(대가·각 권 1만7천원·사진)가 눈길을 끈다. 올림픽 개막에 맞춰 원림, 박물관, 음식, 차, 복식, 경극을 주제로 한 6권이 먼저 출간됐다.

대학교수 등 각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쓴 원문을 번역해 둘은 책이다. 분야별 중국 문화의 특징을 종정리했으며 다양한 사진과 일화도 곁들였



다.

제1권 '원림'은 중국의 유명한 정원의 기원과 양식을 칭화대학교 러우정씨 건축학과 교수가 자세히 소개한다.

중국의 문화재 이야기를 담은 제2권인 '박물관'에서는 베이징박물관 리씨엔야오 부관장이 중국의 57개 박물관과 대표 소장 문화재를 소개하고 밤 글 과정의 뒷이야기도 들려준다.

제3권 '음식'에서는 '중국은 삼합수, 비행기를 빼고 바다를 헤엄치고, 하늘을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다'는 중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됐다. 베이징·산동성·쓰촨성 등 지역별 요리와 중국인의 식사 예절도 알려준다.

이밖에 '차'·'복식'·'경극'편에서도 다양하고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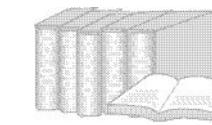
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생동감 넘치는 중국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살립출판사는 중국 관련 서적 7권을 시리즈로 내놨다. '살립지식총서 중국시리즈 II'(각권 3천300원)는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의 역사와 문화를 도시별로 소개하고, 화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화 경제의 리더들을 살폈다.

'세계의 수도 베이징'(창비·1만8천원)은 상명대 중국어문화과 교수인 조관희가 '하늘 아래 유일한 수도'로 불렸던 베이징의 곳곳을 살핀 에세이집. 찬란한 황궁에서 서민들의 공간인 뒷골목 후퉁(胡同)까지 베이징의 모든 것을 담았다.

중국전문출판사 에버리치홀딩스에서 번역한 '차이나 로드'(1만6천원)는 '마더 로드(어머니의 길)'로 불리는 4천825km 구간의 중국 312번 국도를 두 달 동안 여행한 서방 특파원 탑 기포드의 중국 횡단기다. 312번 국도는 상하이에서 고바사마, 실크로드를 거쳐 카자흐스탄 국경까지 이르는 길. 이 길을 따라 강제로 중국에 편입된 신장 위구르족 및 티베트족의 격화된 민족 모순 등 경제성장 이면에 가려진 진짜 중국, 중국인의 모습을 관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새책

▲청산에 살어버렸다 외 2권=북한의 문예출판사의 '조선고전문학선집'을 재편집한 보리출판사의 '겨울고전문학선집' 시리즈, '공무도하기'에서 '아리랑'까지 1천200편의 노래를 묶었다. '옹해야 어쩔 죄구 옹해야', '타박타박 타박네야'도 함께 나왔다. <보리·각 권 2만5천원, 3만원>



▲기후 커넥션=미국우주항공국 NASA에서 세계 기후 연구분야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이W. 스펜서가 지구온난화 이론에 대한 한계점과 이를 둘러싼 과학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환경 대안도 함께 모색했다. <비아북·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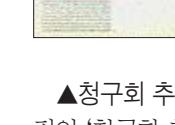
▲1900, 조선에 살다=1890년 중반부터 20여 년간 자전거로 조선 전역을 누비며 서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했던 선교사 제이콥 로버트 무스(1864~1928)의 눈에 비친 시골 이야기. 눈병 치료를 위해 고춧가루를 눈에 넣는 등 낯선 풍경들이 담겨있다. <풀먼역사·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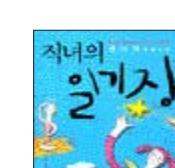
▲장미의 미궁=중세 유럽의 민속과 마법 등 관한 책들을 주로 써 온 티타니아 하디의 소설 데뷔작. 17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전해진 암호화된 문서를 토대로 가문의 비밀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천원>



▲프랑켄슈타인의 일상=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인 백영경이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를 여성 학과 인류학의 관점에서 짚어본 연구서. '대리모', '성장 호르몬', '불임 시술' 등 우리 사회가 생명공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비하는지 살폈다. <임·1만5천원>



▲청구회 추억=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실린 글 중 한 편인 '청구회 추억'에 일러스트와 영역 원고를 더한 이야기책. 1966년 서오릉에 봄소풍을 갔다 갈에서 만난 여섯 명의 소년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소개했다. <돌베개·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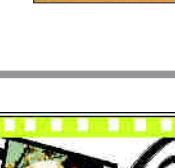
▲직녀의 일기장=제2회 세계청소년문화상을 수상한 전아리의 장편소설. 평범하면서도 억센 듯한 열여덟 살 여고생들의 좌충우돌 고교생활기를 담았다. 주인공 직녀의 일기를 통해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그렸다. <현문미디어·9천500원>



▲빈털터리들=독일의 대표작가인 카타리나 하커의 장편소설.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직을 가진 30대 부부를 통해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만 정신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을 그렸다. <창비·1만2천원>



▲화폐전쟁=세계 경제의 역사가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암투였다는 음모론적 시각에서 기획된 세계경제 분석서. 미국에서 금융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홍방이 21세기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닌 '화폐'라고 주장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2만5천원>



최근 주요 이슈 64가지
전문가 50명이 상세 설명



철학과

과학의 융합을 주제로 한 '철학으로 과학하라', 생명공학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생명, 인간의 경계를 둘다',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사회문화를 현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문화, 세상을 풀어주다' 등이다.

강신의(인체대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교수 등 각 계 전문가 50명이 참가해 이론과 사상적 논리를 극복으로 최근에 발생한 주요 이슈 64가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웅진지식하우스·각 권 1만3천원>

/이은미기자 emlee@

매혹과 열광 ... 한스 U.굼브레히트 지음



많은 사람들이 날을 새가며 LPGA에 참가한 신지애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지켜 보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빼놓지 않고 관전한다.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됐으니, 스포츠광들은 또 '올림픽 페인'이 될 것이다. 시차가 1시간인 그나마 다행이랄까. 그럼 스포츠 마니아들이 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드는 게 단지 경기의 승패와 기록 경신이 궁금해서이기만 일까.

미국 스텠퍼드대 문학부 교수인 한스 U.굼브레히트가 쓴 '매혹과 열광-어느 인문학자의 스포츠 예찬'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스포츠를 소재로 한 인문서라 할만하다.

모든 스포츠의 광팬임을 밝힌 저자는 철학, 사회

철학·사회학·미학·문학 통해 본 스포츠의 매력

학, 미학, 문학 등을 통해 스포츠의 매력을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알리의 경기 장면이나 조 디마지오의 이야기 등 적절한 사례들을 참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스포츠가 갖고 있는 매혹의 요소를 꼼꼼히 살펴본 3장이다. 저자가 꼽는 스포츠의 '매혹'은 일곱 가지다. 조각듯 한 듯한 육체, 죽음에 직면한 고통, 우아함, 육체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도구, 형식의 구현, 플레이, 적절한 타이밍. 물론 경기의 승패가 스포츠팬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체조, 피겨 스케이팅, 다이빙 등 심판들의 점수가 승패를 판가름하는 경기에서 '새로운 형식의 구현'은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이다.

기존 스타일을 과기해 버리고 강렬한 근성과 스피드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낸 10대 소녀 코마네

치와 남들에 비해 좋지 않은 체격 조건을 가졌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감각적 동작으로 혁신을 일으키며 다이빙 영웅으로 등극한 루가니스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열성팬을 갖고 있는 구기 종목의 경우 스포츠 팬들이 즐기는 대상이 단지, 골, 터치다운, 훌런, 덤크슛 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득점까지 이르는 '과장'에 이르는 멋진 '플레이' 아발로 팬들이 진짜 갈구하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골잡이인 호나우두보다 그 '플레이'를 만드는데 탁월했던 호나우지뉴나 지난달 더 칭찬받고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책은 그밖에 스포츠가 왜 미적인 체험과 찬양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스포츠의 역사도 두루 다뤘다.

/돌베개·1만4천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 2008 Happy Time

© 2008 Happy Time